

기초부터 배우는 성경 공부

제13과 안식일

[출20:8-11]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9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 제 칠 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 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한다. 안식일은 우리말을 풀이하면 평안히 쉬는 날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말을 낱말 뜻으로 풀이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용어이다. 이것은 한 주간의 끝날을 지칭하는 이름으로서 하나의 고유명사이다. 그것은 요일 이름인 것이다. 그런데 그 요일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안식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안식일 문제를 연구해보자.

1.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창2:1-3]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2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안식일은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일의 일곱째 날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기념하여 쉬신 날이다. 하나님께서 쉬시므로 모든 피조물에게 쉼을 창조해 주신 날이다. 이날에 쉬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쉼에 참여하는 것이다.

첫째;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다.

[출20:10] 제 칠 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이날은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변경할 수 없다. 이 날은 여호와 하나님이 소유주이시다.

둘째; 안식일은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다. 즉 창조의 기념일이다.

[출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신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창조주와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은 일곱째 날을 기억하는 것만 포함된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라는 날을 기억하는 것은 그 날을 제정하신 창조주와 제정한 뜻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 날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된다.

셋째; 제 칠일이다. 한 주일의 일곱 번째 날이다.

[출20:10] 제 칠 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일주일 중에 어느 한날 쉬면 되는 날이 아니다. 일주일 중에 일곱 번째 날이다. 그러므로 이 날 외의

어느 날도 안식일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일요일이 일요일 아닌 날이 일요일이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안식일은 요일 이름으로 고유명사인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날들의 끝이다. 요즘 말로 하면 주말이라는 말이다. 이것이 창세기 4장에 나타난다. [창4:3]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번역된 말은 “כִּי, מִפְּנֵי הַיּוֹם” 와예히 미케즈 야뎀”인데 직역하면 “날들의 끝에”가 된다. 즉 안식일에 제물을 드렸다는 뜻이다. 이 말은 가인 때에 날을 7일씩 계산했고, 그 일곱째 날을 날들의 끝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게 한다.

넷째;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복 주어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

[출20:11] 이는 옛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 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자체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나님이 친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날이라고 선포하셨다. 이 날을 기억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며 창조주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글을 의지하고 힘입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신다. 복은 바로 이 생명이다.

[시133:3]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출23:12] 너는 육 일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제 칠 일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일은 숨을 돌리는 날이라고 하였다. 숨을 돌리는 것은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뜻한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생명력을 확인하는 날로 주셨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날로 주셨다.

2. 안식일에 어떤 다른 기념을 두셨는가?

[신5:12-15]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3 옛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 제 칠 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사실을 기념하는 날이다.

다섯째; 안식일은 구원의 기념일이다.

구원은 재창조이다. 구원의 기념이라는 말은 재창조의 기념이라는 말과 같다. 구원과 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임을 기억하면 구원이 재창조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45:8,9]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솟듯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여섯째;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시는 기념일이다.

[겔20:12]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구별하였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안식일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호와와의 구별된 사람임을 증거한다.

일곱째;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기념이다.

[겔20:20]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은 그가 여호와를 모른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가 창조주이신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안식일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드러내는 표가 된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식구라는 것을 표내는 성(姓)과 같은 것이다.

여덟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를 더럽히는 것이다.

[겔22:26]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더럽힌다면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아홉째; 안식일은 심판과 관계된 날이다.

[계14:6,7]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말씀은 심판과 창조가 연관되어 있다. 창조와 심판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창조와 심판이 연관된 사실을 계시한 말씀은 또 있다.

[계3: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라오디게아(Λαοδίκεια)는 라오스(λαός)와 디케(δικη)의 합성어인데, 라오스는 백성이라는 말이고 디케는 재판에서 판사가 무죄하다고 선언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심판으로 의롭다고 판결받은 백성이라는 뜻이다.

이 말씀에도 심판과 창조가 관련되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벧전4:17-19]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18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19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이 말씀에도 심판과 창조가 연관되어 나타난다. 심판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창조주께 부탁하라고 권한다.

왜 심판과 창조가 연관되어 나타나는가? 여호와라는 이름은 심판주로서의 기념이 있다는 사실을,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배웠다.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해주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자가 여호와와 상관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주장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창조해 준 존재를 반납하라고 요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과 창조는 당연히 연관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경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존재를 반납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창조주를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반납해야 한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심판과 관계된 날인 것이다.

3. 안식일이 오늘날 토요일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이것은 성경적 증거와 역사적 증거가 있다.

첫째 오늘날 기독교의 모든 종파가 일요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지킨다고 주장한다. 성경은 안식일 후 첫째 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모든 교파가 성경의 안식일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날이라고 증명하고 있다.

[눅23:54-24:6] 이 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55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좇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56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24:1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2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기운 것을 보고 3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비치 아니하더라 4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5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둘째, 모세 때로부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정확하게 계수하여 지켜왔다. 오늘도 유대인은 그 안식일을 지킨다. 그들이 안식일로 지키는 그 날이 바로 토요일이다.

또한 오늘날 여러 나라의 달력에 토요일의 이름이 안식일로 되어 있다. 적어도 105개의 나라가 토요일의 이름을 안식일로 사용한다.

유대; 토요일이 샤바트, 체크; 사바도, 멕시코; 사바도, 등등.

4.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 오늘날 토요일인가?

물론 그렇다. 창조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셨고 제 7일에 쉬셨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안식일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셨다. 만나가 내리지 않는 날은 안식일이었다. 이것을 40년간 계속하셨다. 만나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쉬신 그 안식일 날짜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안식일에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다. 그날 이후로 안식일 날짜가 변경된 역사가 없다.

[출16:4,5] 4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5 제 육 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출16:22,23] 제 육 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23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굵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출16:26-30] 육 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 칠 일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27 제 칠 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2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29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 제 육 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 칠 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30 그러므로 백성이 제 칠 일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은 만사를 내려주시는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안식일을 기억하도록 교육하셨다. 그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하실 때 제 7일이 지금 제 7일과 일치할 수밖에 없다.

5.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마24:20]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은 말세에 환난을 당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안식일에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이것은 말세에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킨 것이다.

[계11: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계12:1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 때 하늘 성소가 열리고 언약궤를 보여주셨다. 그 안에는 십계명 판이 들어 있는 것을 지상 성소를 통하여 잘 안다.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예언하였다. 말세에 안식일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할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사실을 예언한 것은 옛날 이스라엘에게 만사를 주실 때 안식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 순종 여부를 확인하신 것처럼 지금도 안식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 순종의 여부를 삼으신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